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6)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Claude-Nicolas Ledoux의 건축이론 ②: Caractère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도덕(인습) 그리고 법제의 관점에서 고찰한 건축)

Emil Kaufmann은 일찍이 1930년대에 De Ledoux bis Le Corbusier (르두로부터 르코르뷔지에)라는 책을 통하여 Modernism의 효시는 Blondel을 위시한 Ledoux의 선배들, 즉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들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Ledoux를 당시 유럽의 주된 지도자적 건축가로 인식된 Le Corbusier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두 사람의 건축활동 및 저술 활동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역사적인 관련성을 잊고 있다. 좁게는 프랑스의 합리주의적 전통, 넓게는 Kant를 비롯한 유럽의 사상가들과 연결함으로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플라토닉 한 사상의 계승자들임을 이 책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Kaufmann은 Modernism의 효시가 되는 Ledoux의 생각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 Baroque적 고전주의의 포기

\* 프랑스 혁명과 건축

\* 신고전주의와 19세기 건축의 의미<sup>1)</sup>

첫 번째 지적처럼 우리는 Ledoux에게서 바로크의 전반적 몰락과 아울러 바로크적 고전주의에 대한 강한

\* 본명 김원식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건축사상 가운데 바로크의 채택은 난외의 사항임은 쉽사리 짐작하거나 찾아볼 수 있다. 고전주의로부터의 영향, Boullée가 취했던 기하학과 대규모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웅장성의 두 가지 특성을 그가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Kaufmann은 그가 Palladio의 영향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도 귀띔하고 있다.<sup>2)</sup>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호에서 그 개념의 적용 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적절성을 논하였다. 혁명적 건축가들은 시대적으로 프랑스 혁명과 동시대인들이 분명하지만 정치적 노선과 인생역정이 혁명가들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란 사건을 당시의 진보적인 합리주의적 작가들의 사상과 행동에 직접 연관지움은 무리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항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다. Ledoux는 계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음이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중심되는 Ledoux의 태도와 사상은 모범이 되거나 규범적으로 통용되던 몇몇 역사적 건축의 예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의 인간에게 있어서 중심된 철학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던 유토피아의 사상을 기능적인 가치 등을 가지고 재정립한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책제목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도덕(인습) 그리고 법제의 관점에서 고찰한 건축)에서 잘 요약되고 있으며 Ledoux가 평소 가지고 있던 전쟁과 사당에 대한 혐오감, 여성예찬, 사모임에의 취향, 기술발전에 대한 관심 등이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강도로 반영이 되고 있다. *L'architecture...*는 감정적이며 두서없이 산만하게 기술되어 읽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사상 및 성향, 그리고 건축 시스템을 논하는 Ledoux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이 책은 원래 5권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오로지 일부만이 써어져 출판이 되었다. 근래엔 이미 출간되어 발표된 1권 및 3권을 위해 마련된 미출간된 원고가 근래에 각각 발행되었다.<sup>3)</sup>

원본 *Architecture*의 1권은 240페이지로 이루어진, 당시 유행하던 *in-folio*(2절판)의 대형 서적으로 휴대가 불가능하고 운반은 혼자서 들기도 어려운 부담스러운 무거운 책이다. 근래엔 휴대가 가능한 국판으로 축소된 책이 출간되어 보급되고 있다. *Architecture*는 새로운 건축을 주제로 한 책이지만 작가

의 회상, 고백 그리고 그의 건축적 유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배경이 이면에 깔려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생애 내내 이어진 그의 투쟁, 희망, 그리고 실망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비운의 시각으로 기술하며 돌아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은 건축에 대한 Ledoux의 기본적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선 건축의 모든 과제들을 다루는 건축시스템을 고안하는 데에 그의 의도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후대의 Owen, Fourier, Howard 등의 이상도시계획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선구적 업적을 고려하여야 만 하리라. Ledoux에 의하면 건축은 사회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그는 자기의 책에 가능한 한 모든 장르의 건축을 예시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ai placé tous les genres d'édifices que réclame l'ordre social... 나는 [이 책에] 사회 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장르의 건물을 수록하였다...“*<sup>4)</sup> 수록된 각 건물들은 사회계급과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화려함을 외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 화려함의 정도를 통하여 서로 보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La maison du pauvre, par son extérieur modeste, rehaussera la splendeur de l'hôtel du riche... (빈자의 주택은 그 수수한 외관을 통하여 부자의 대저택의 장려함을 더 한층 둑둔운다...)“*<sup>5)</sup>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빈자의 주택과 가진 자의 주택은 정도상 다른 화려함을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적인 보족 개념에 따르면 건축은 사회적 공존의 법칙을 표현하여야만 하는데 그의 사상에 있어서 Ledoux는 Rousseau의 사회계약론의 이론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i la société est fondée sur un besoin mutuel qui commande une affection réciproque, pourquoi ne réuniroit-on pas, dans des maisons particulières, cette analogie des sentiment et de goûts qui honorent l'homme?... Le caractère des monuments, comme leur nature, sert à la propagation et à l'épuration des moeurs: 만일 사회가 상호 작용을 요청하는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인간을 명예롭게 하는 이러한 감정과 취향의 유추를 특수한 주택들에 연결시키지 않는가?... 그 본성처럼 기념*

1)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Equerre*, Paris, 1981, p. 32.  
원본은 독일어판이다. cf. Kaufmann, Emil: *Von Ledoux bis Le Corbusier*, Rolf Passer, Wien/Leipzig, 1933.

2) Kaufmann, Emil: *Trois architectes révolutionnaires* (3인의 혁명적 건축가), Les éditions de la SADG, Paris, 1978, p. 143 참조.

3) Ledoux, Claude-Nicolas: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Hermann, É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Ledoux, Claude-Nicolas: *Architecture de Ledoux: Inédit pour un tome III* (로두의 건축: 미발행 3권 원고), Les éditions du demi cercle, Paris, 1991.

4) ibid. p. 1.

5) ibid. p. 1.

물의 성격은 도덕의 전파와 순화에 소용이 된다.'<sup>6)</sup>

### 건축의 사회적 위치와 Caractère

#### - 건축 및 건축가와 사회

Ledoux는 건축가를 일반 대중을 아끌고 비전을 제시하며 자상하게 교육하는 교육자적인 책임자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건축가란 최고의 엘리트로서 사회의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초급진성의 다른 혁명적 인물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고수한다. Ledoux가 말하는 지도자적 건축가란 기존의 사회체계를 전복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보완해 나가는 개혁과 혁명에 가깝다. 그에 의하면 건축가는 영적인 지도자이며 건축을 통하여 사회의 체계를 '정화' 하는 사람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책의 제목을 빌어 유추하자면 건축이란 윤리적, 입법적,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Ledoux는 건축가의 사회적 위치 및 건축이란 직업을 논하며 상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건축가를 단순하고 기계적 생산활동 주체로서의 장인이 아닌 창조적 행위자로서 고려하여 조물주에 비유하고 있는 바 장인이란 창조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반면 천재에 비유되는 건축가는 그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sup>7)</sup> 그의 생각에 따르면 건축가는 '지상의 타이탄 (*Titan de la terre*)'으로서 '창조주와 경쟁하는 사람(*rival du Crâteur*)'이다. 이런 힘을 가진 건축가에게는 침착한 신중성, 용의주도함보다도 오로지 뜨거운 열정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그의 책에서는, 이미 전술한 혁명적인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앵글로 색슨족이 프랑스의 극단적인 사상과 행동을 냉소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구, 소위 '프랑스적 광기 (*French Madness*)'를 엿볼 수 있는데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혼돈하는 계획안과 문장의 서술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Ledoux의 정의에 의하면 '만족의 전당 (*Temple au Bonheur*)'이라고도 하는 법원건물은 빠시페르(*Pacifère*)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명칭은 평화, 중재 등을 의미하는 어근 'pacif-'로부터 유출한 원래 사전에 없는 그가 만든 조어이다. *Pacifère*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에 그친 공상적인 안(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실지로 이 건물을 건립한 듯이 서술하고 있어서 꿈과 실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인식적 경계의 불분명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대목이다: 'Dans mon aveugle enthousiasme, j'amoncelais des pierres les unes sur les autres et je voulais en former un monument digne de la grande id e dont se repaissait

mon imagination. 맹목적인 열정으로 나는 돌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상상력을 만족시키고 위대한 사상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한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였다.'<sup>8)</sup>

천재로서의 건축가가 소유하여야 할 방법론으로서 그는 선대 스승들이 확립한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방법은 -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프랑스 학자 및 건축가들이 애용하는 방법론은 - 조사대상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계통별로 분류하여 위계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Ledoux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생 Blondel이 그리하였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건물들의 위계를 조사하는 것이 그의 임무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그처럼 다양한 건물들에 있어서 발견되는 유일한 차이점이란 단지 scale과 caractère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 Caractère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Ledoux에게 있어서 caractère란 선대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그려했듯이 건물의 용도 등에 따르는 기능적 개념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Caractère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건축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특징 중 하나는 caractère가 쉽사리 훈육적 내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하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kema(오이께마) 또는 '사랑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계획안에서 이러한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Oikema는 마음이라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 중의 하나를 담는 건물이지만 역설적으로 훈육의 기능을 가지는 계획안이다. Ledoux가 믿기를 비행의 행위자체는 사악한 것이지만 비행과 그것을 보는 행위는 인간이 타락하고 있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 반성의 길 즉 미덕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형태만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창이 없는 외벽 및 주랑을 가지고 있는 현관으로 구성된 그 건물의 투시도를 통하여 보면 마치 고결하고 신성한 신전 등의 건물과 같이 생각되지만 평면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그러한 고상한 상념을 비웃듯 음경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caractère는 곧바로 직설적인 상징성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부차적인 사실로서 Ledoux에게 있어서 장식은 어떤 건물의 caractère에 의하여 정당화될 때만 허용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모든 장식이 소

6) ibid. p. 1.

7) 'L'homme de m tier est l'automate du Crâteur, l'homme de g nie est le Cr ateur lui-m eme: ibid: p. 175.'

8) ibid. p. 175.

그리고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edoux로부터 Le Corbusier까지), l'Equerre, Paris, 1981. p. 29 참조.

멀됨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장식의 개념을 제거하는 사상은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연속선을 옹호하는 미학의 매력을 인정함으로 확립하게 되는데 Le Corbusier의 순수주의적 건축과 그가 여러 책에서 강조하는 명료하고 '연속적인 modénature(모데나뛰르: 윤곽선)'의 강조에 비교된다: 'L'unité, type du beau... consiste dans le rapport des masses avec les détails ou les ornements, dans la non interruption des lignes qui ne permettent pas que l'oeil soit distraitt par des accessoires nuisibles. 미의 원형인 단일성은... 양계와 디테일 또는 장식간의 관계, 그리고 해로운 부자물에 의하여 눈을 혼란케 하지 않는 선의 비중단성(非中斷性)으로 구성된다.'<sup>9)</sup>

Ledoux는 고전주의의 건축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건축관에 일치하는 내용을 그것들에 부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념의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variété(바리에떼: 다양성)는 각 건물에 적합한 인상학(Physiognomy)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Convenance(꽁브낭스: 적합성, 합목적성)는 사회적 위치 또는 지위, site, 기능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 Bienséance(비양세양스: 적절성)는 무엇보다도 건물의 내용 표현(Caractère)을 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비례와 장식의 유추'를 가리키고 있다; symtrie(시메트리: 대칭)는 자연으로부터 유추하여 Solidité(솔리디떼: 견고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에 대하여 균형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화적이고 이상한 불규칙적인 형태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Goût(구: 취미)는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상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잡한 서술에서 Ledoux는 완전히 그 명료성을 상실하여 혼돈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의 텍스트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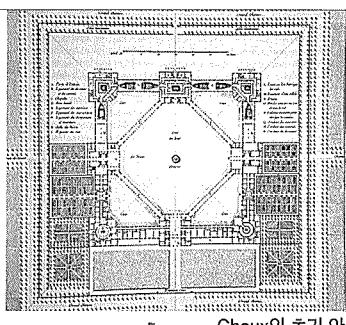
Boulée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미학개념으로서의 '비례(Proportion)'의 항목은 Ledoux에게서는 사라지고 없다. 이상하게도 solidité는

Boulée가 사용하는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용되지만 Symétrie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다. Boulée의 건축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로 생각되었던 극단적인 광대무변성은 Ledoux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좀 더 축소된 스케일에서 거대 기념물적인 성격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Ledoux와 Boulée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건축의 실질적인 가치를 논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때 기능성을 무시하고 환상적인 시각 효과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Usage(유사지: 유용성) 또는 Commodit(꼬모디떼: 쾌적성)란 용어로써 표현되어 온 프랑스 건축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기능적 요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건축은 특별한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음과 아울러 교회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그의 디자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거주할 수 없거나 사용불가능의 것들이 대부분인 공상적인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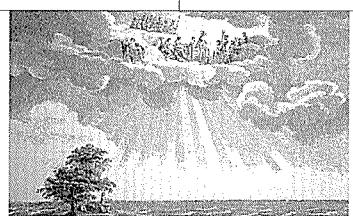
Ledoux가 제작한 공상적인 디자인들의 대부분은 소금공장의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는 1775년과 1779년 사이에 Chaux의 소금공장의 건축 디자인에 관여하였는데 첫 번째의 계획안은 시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소금공장, 행정동 및 주거동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하나의 단지에 배치되었다. 두 번째의 계획안은 원형으로 계획되었으며 영국의 Garden City의 개념을 이미 엿볼 수 있지만 중심되는 디자인 개념은 역시 소금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의 중앙에 지도자의 집이 있어서 전체를 관할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바로 전제국가의 상징적 체제가 소금공장의 평면에 구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J. Bentham의 Panopticon(파놉티콘)과 서양의 Utopia 개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Chaux의 계획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문명의 병폐로부터 발생한 도시를 거부하고 전원으로의 회귀하고자 하는 사상은 Rousseau로부터 발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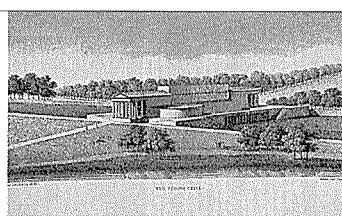
9) ibid. p. 9.



Chaux의 초기 안



빈자리 은신처



Oikema 투시도

648

648

648

다. 또한 아마도 청교도적 사상의 혁명정신을 가진 François-Noel Babeuf (프랑수와-노엘 바뵈프 1764-97)로부터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Babeuf는 도시 거주자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 때문에 도시를 거부하였으며 그 거주자들을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였다. 1793년에 왕정옹호자로 몰려 투옥된 Ledoux는 사실상 너무도 혁명성이 강해서 1797년 처형된 사람의 사상을 채용하였던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원으로의 회귀사상은 Ledoux의 Chaux 계획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발견이 된다. Ledoux는 Rousseau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자연과의 밀접한 친화를 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계획안에서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도 새로 지어질 건물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으며 인간은 동물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말년에 *Caractère*의 미학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Ledoux는 건축에 있어서 평등의 개념을 조명하고 있다. Ledoux는 이러한 단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Pour la première fois on verra la même échelle la magnificence de la guinguette et du palais... 처음으로 오두막과 궁전의 장려함이 동일한 스케일로 소개되는 것을 볼 것이다...’ Ledoux가 의미하는 평등성이라 불란서 혁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도덕적’ 평등<sup>10)</sup>을 말한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주법(order: 柱範)은 더 이상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능적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Caractère*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이처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사회를 향한 Ledoux의 사상은 전적으로 낭만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벌거벗은 사람이 하늘의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빈자의 피난처 (abris du pauvre)’에서 잘 나타나 있다. Ledoux는 이 그림에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성서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ce vaste univers qui vous étonne, c'est la maison du pauvre, c'est la maison du riche que l'on

a dépouillé. 당신을 놀라게 하는 이처럼 광대한 우주는 빈자의 집이다. 부자의 집은 빼앗겨 거두어지었다.’<sup>11)</sup> 그와 유사하게 Ledoux는 두 개의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황도(黃道)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 과학적인 논리성이 부족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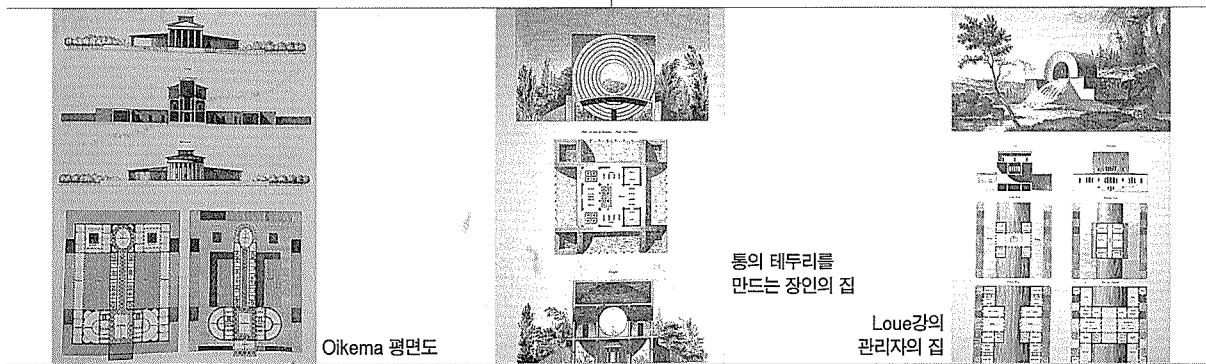
Ledoux의 평면과 투시도, 그리고 각 디자인 개념과 설명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서로 모순적이다. 이것은 그의 유토피아적 관점을 어느 정도에까지 전개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그의 관점이 변화하고, 각 계획은 각기 다른 국면과 상황 하에서 제각기 따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Ledoux는 평등성에 대한 고려로서 노동자의 집뿐만 아니라 사무원들의 집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 집들은 모두 기하학적인 입체의 모양을 하고 있고 각기 모양은 *caractère*에 따라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통의 테두리를 만드는 장인의 작업장 (Atelier des ouvriers destiné à la fabrication des cercles)’은 두 개의 원통이 직각으로 교차하여 서로 관통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의 구멍은 주택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시선이 관통되도록 허락하고 있다. 외부에 나이테 모양으로 배치된 환대(環帶)들은 관자로 하여금 이 건물이 소금 통의 테두리를 만드는 곳임을 쉽사리 짐작하도록 하고 있다. ‘Loue강(루우江)의 관리자의 집’은 물의 상징성을 직설적으로 사용하여 시내 물이 건물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말하는 건축(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이 거주자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건물 외부에 표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Ledoux의 형태언어는 *Bouillée*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입체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각 건물이 가져야 할 *Caractère*와 일치하도록 의도되었다. Chaux의 공동묘지에서 Ledoux는 *Bouillée*의 사상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건물에 파묻힌 대규모의 구체는 속이 비어 내부공간 역시 구체

10) ibid.

11) ibid.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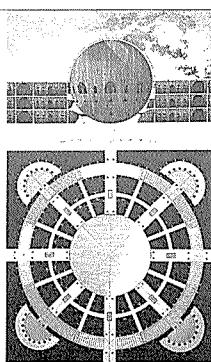


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단면을 살펴보면 구체 하부 및 구체를 받치고 있는 내부의 공간들에 개구부가 배치되어 있지만 채광이 보장되지 않아 로마시대의 어두운 지하분묘(Catacomb)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 공동묘지를 투시도적으로 조망하여 묘사하는 또 다른 판화도에서는 여러 행성들과 구름으로 둘러싸인 둥그런 지구의 모습으로써 공동묘지를 제시하여 형태가 순수 기하학으로 추상화되고 기단이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공상적인 공동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류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질을 바로 상징주의라는 단어 외에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더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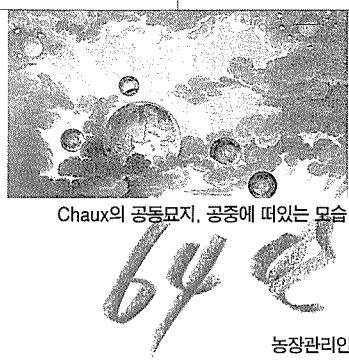
세상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농장 경비인의 집(Maison des gardes agricoles)'은 Chaux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780년 Ledoux에게 의뢰된 Maupertuis(모뻬르뛰이)의 성체계획 중의 일부이다. 이 '농장 경비인의 집' 역시 Chaux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이다. 이 집은 아마도 Platon의 Timaeus(티메우스) 또는 Philebus(필레부스)에서 권고하는 소위 완전형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표면에 장식이나 요철 등이 최소화되었고 창이 전혀 없도록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로 접근하려면 사면에 기대어진 경사로(ramp)를 올라 Venetian Window양식 또는 Palladian Window 양식이라고 불리는 양식적 처리가 된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가도록 되었다. 단면은 이상적인 건축을 위한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거주의 적합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측면의 고려가 전혀 무시되고 있음이 잘 관찰된다. 이렇듯 기하학적 형태를 건물의 기본 출발점으로 하는 경향은 사실상 르네상스 아래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지만 Ledoux의 경우에서처럼 상징성이 기본적인 여러 측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고 하나의 독립된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적은 없었다. Boullée의 Newton 기념물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좀 작긴 하지만 농장경비인의 집은 가장 완전한 형태이자 우주형상의 모사물인 구체를 건축적으로 구현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형태를 우선으로 하고 기능성, 편의

성을 무시하여 통렬한, 쓰디 쓴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한 건물이리라. 혹은 비록 이런 류의 비평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손 쳐도 건축을 단순한 기하학으로 환원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달리 말하면 이 건물에 구체가 꼭 맞는 형태인가 하는 것을 질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Ledoux의 작품이 명확한 분절과 단순한 형태들로 구성하는 원, 사각형 등의 기하학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고지식한 것이다. 건물들의 전체 구성은 일관성 있는 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계획안을 살펴보면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뒤에 숨어 있는 공간의 조합 및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성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책의 서술된 내용의 복잡성과 풍부성을 감안한다면 Ledoux의 건축을 한마디로 단순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Ledoux의 건축은 몇겹의 벌기기를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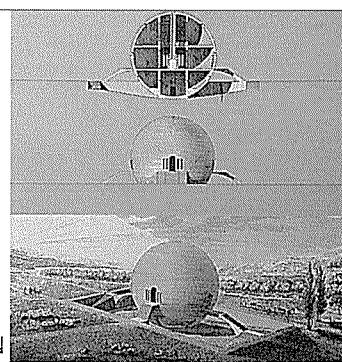
Ledoux의 Chaux계획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후대의 Owen, Fourier, Pemberton 그리고 Howard 등 의 사람들이 구상한 이상도시계획에는 Ledoux가 역할이 뛰어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가 건축을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는 것과 장식의 완전 거부는 Loos나 Le Corbusier의 선조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Ledoux가 의도하는 Caractère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Caractère는 건물의 기능을 표현해야 하지만 실제적 또는 구조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생각을 따르면 건물의 유용성은 표현적 과제에 부속하게 되고 내재적 기능은 때때로 무시되거나 희생된다. 간단히 말하면 Caractère가 Usage보다 우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8세기 초의 불란서 건축이론의 중심점이 되었던 Usage는 혁명적 건축에 있어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건축은 신호(Sign)를 위한 언어가 되었을 뿐이다. Ledoux에게 있어서 건축은 순수한 Image가 되었을 뿐 건축적인 건축이 되진 못했다.



Chaux의 공동묘지



Chaux의 공동묘지, 공중에 떠있는 모습



농장관리인의 집

14e

14e